

‘호란’ 연구에서 주의할 점

스즈키 가이(도쿄대학)

발표요지

“호란”이란, 한반도에서는 청나라 홍타이지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침략으로 이해되고 있다. 이 호란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태다. 그 원인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, 관련자료가 명, 청, 조선왕조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, 또한 그 자료들이 중국어, 만주어, 몽골어 등 복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중국사, 한국사와 같은 틀에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. 최근 주로 만주어사료를 이용한 청조사연구의 발전으로 이러한 과제는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호란의 실태 해명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.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한국에 있어서의 호란연구를 소개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호란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. 하나는 제 1차 침략시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“정묘화약”에 관한 것이며,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외교관 박관영의 제 2차 침입시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. 이 두 개의 문제는 어느 것이나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호란연구에 있어서의 자료의 증충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의점을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재료를 제공해 준다.

강사약력

〈스즈키 가이/SUZUKI Kai〉

2006년 메이지대학 문학부 졸업. 2014년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수료.
博士(文學).

현직 :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조교

전문분야 : 조선 근세 정치외교사, 조중·한중관계사

주요 저작 : 「丁應泰の變と朝鮮--丁酉倭亂期における朝明關係の一局面」, 『朝鮮學報』 제 219 집,
2011. 「朝鮮丁卯胡亂考 : 朝鮮・後金關係の成立をめぐって」, 『史學雜誌』 제 123 편 8 호,
2014. 「丙子の亂と朝清關係の成立」, 『朝鮮史研究會論文集』 제 55 집, 2017.